

| 최신산업간호연구동향 |

인천지역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과 관련요인

한국산업간호학회지 제14권 2호

최미경, 김영숙, 이연숙, 성낙정, 한상환

본 연구는 인천소재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위별 증상 유병률 및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.

연구대상자는 인천에 있는 중소규모 54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남, 여 근로자 3,434명이며, 2004년 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9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1. 미국 NIOSH 진단기준에 의한 신체 발생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은 어깨부위 235명(7.0%)으로 가장 많았고, 허리 155명(4.5%), 손/손가락 136명(4.0%), 발/다리 131명(3.9%), 목 108명(3.1%), 팔/팔꿈치 97명(2.8%) 순이었다.

2.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조사에서는 40-49세 연령에서 9.6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($p<0.01$), 성별은 여성에서 13.3%로 높게 나타났다($p<0.01$). 결혼유무에 따른 유병률은 기혼에서 17.9%로 높게 나타났고($p<0.01$), 여가 및 취미활동에 따른 유병률은 '여가 및 취미활동을 전혀 안한다.'라고 응답한 근로자에서 16.8%로 가장 높게

나타났으며, 가사노동시간에 따른 유병률은 '가사노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.'라고 응답한 근로자에서 7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($p<0.01$).

3. 직업적 특성과 발생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은 근무년수 별 유병률에서 3년 이하 근무경력을 가진 근로자에서 9.21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($p<0.01$), 1일 근무시간에 따른 유병률은 10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서 14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($p<0.01$). 현재 근무하는 부서에서의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에서는 '약간 힘들다'고 응답한 근로자에서 11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($p<0.01$).

4. 제조업종에 따른 신체 발생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은 다음과 같다.

- 1) 자동차 부품 제조 근로자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은 대상자 1,293명 중 어깨 부위가 125명(9.8%), 허리 87명(6.8%), 손/손가락 81명(6.4%), 다리/발 72명(5.7%), 목 66명(5.1%), 팔/팔꿈치 56명(4.4%) 순이었다.
- 2) 철 가공 제조 근로자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은 대상자 836명 중 어깨 부위가

50명(6.1%), 손/손가락 30명(3.7%), 다리/발 28명(3.4%), 허리 28명(3.4%), 팔/팔꿈치 23명(2.8%), 목 19명(2.3%) 순이었다.

- 3) 전자 부품 제조 근로자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은 대상자 1,051명 중 어깨부위가 43명(4.2%), 허리 30명(2.9%), 다리/발 26명(2.5%), 목 19명(1.8%), 손/손가락 16명(1.6%), 팔/팔꿈치 11명(1.1%) 순이었다.
- 4) 목제 가공 제조 근로자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은 대상자 254명 중 어깨 17명(6.8%), 허리 10명(4.0%), 손/손가락 9명(3.6%), 팔/팔꿈치 7명(2.8%), 다리/발 5명(2.0%), 목 4명(1.6%) 순으로 나타났다.

상기의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.

1.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산업안전공단 표준양식에 의한 통증관련 문항으로 근골격계질환 발생 관련요인이 포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바 좀 더 세분화된 조사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.
2.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사업장 근골격계질환의 일원화된 관리보다는 요인별, 발생빈도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.

